

엔도르핀 샘솟게 하는 대통령



이 관 열
강원대 교수 · 언론학

이렇게 큰 실험실이 있을까. 파블로프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 이론이 한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실험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무슨 말인가. 대통령의 말에 수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두고 말한다. 대통령이 입을 열면 만인의 입이 자동적으로 열린다. 이제는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아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선(電線)이 상호 연결돼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대통령이 반복하는 “말씀”이 몸에 엔도르핀 같은 좋은 호르몬을 들게만 한다면 괜찮다. 그래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오고, 기운이 솟구친다면 아무리 똑 같은 말은 들어도 좋은 것이다.

엔도르핀을 솟아나게 한 정치인들을 들라면 으뜸은 케네디다. 여성들만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 남자들도 부러워했다. 카메라가 24시간 케네디를 쫓아다녔다. 휴양지든, 집이든 그의 얼굴, 몸짓 자체가 모든 이를 즐겁게 했다. 입을 열면 그 인기는 더했다. 케네디를 볼 때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고, 엔도르핀이 돌았던 것이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신(神)도 그의 인기를 질투해 그를 빨리 데려갔다고 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도 그의 정책을 반대하고, 선거에서 그를 찍지 않은 사람들도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를 짓더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을 정도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의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이상적이고, 먼 나라 이야기다. 아직도 우리의 대통령은 국민이 뭘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려 들고, 설득하려 든다. 해방 전후사를 다른 역사책 몇 권 방금 읽고,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당신들은 속아 살아왔다”고 강요한다. 그런데 우리네 일반 사람의 정치적 식견은 외국의 정치 비평가 못지않은 수준이다. 일반 국민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알 만큼은 다 안다.

바야흐로 독서와 그들만의 토론으로 역사를 배운 세대가 역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세대까지 가르치려 들고, 그들을 부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노 정권은 어떻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한 점의 의심이나 회의도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는 역사의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그리고 처칠은 20대에 진보적이지 않으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

보수적이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념도, 정치 철학도 진화해야 한다는 대정치가의 교훈이다.

우리 지배권력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결박된 포로들이다. 더욱이 역사에 대한 겸허함, 선배 세대들의 삶에 대한 존경심 같은 덕목도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동료 인간에 대한 예의, 배려, 감정이입은 그 어떤 이념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변해도 이러한 가치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을 묶어 주는 끈이다.

이전 세대의 경험과 역사관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나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다.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다. 열심히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살아온 많은 기성세대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가 극렬한 의견차이가 난 지난 선거에서 크게 덕을 보았어도, 세대 간 균열 문제는 대통령이 된 뒤에는 시급히 치유에 나서야 했다. 그것은 미

래에 큰 재앙이 될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을 이용하거나 방관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이는 민족과 역사 앞에 가장 큰 빛을 지는 것이다.

그래도 어찌 됐든 한국인들은 타고난 간디다. 속으로 삭이고 잘도 견뎌낸다. 다수 국민은 간디의 비폭력 · 무저항 정신을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얼굴 붉히지 않고,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 사실 현재의 파고는 우리 과거사를 되돌아볼 때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다. 이까짓 명(命)이 다한, 흘러간 이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불굴의 의지와 투지의 한국인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이제는 너무 비판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그리고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는 엔도르핀이 돌게 하는 대통령을 꼭 뽑아야 하고, 또 그런 세상은 반드시 온다는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